

❖ 아모스 6 장, ‘이스라엘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악을 버리고 공의와 선을 행해야만 살 수 있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사치와 쾌락만 추고하며 살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지배층들 (1-6 절)

1)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 절)

▪ 우선 이 두 그룹은 누구를 말할까?

①. ‘시온에서 교만한 자’ = 예루살렘과 다윗 성에 살던 남유다의 지도층을 의미!

- 남유다 사람들은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한 곳이라 여김!
-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하던 북쪽보다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고 있다 여기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음!!

②.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 사마리아 성에 살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

-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경제/문화/군사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부강한 삶을 누림!
- 이때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성과 같은 요새는 그 어떤 적이 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저들의 경고를 무시함!

▪ 참고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잘못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사람!!
-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성숙한 신앙인은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며 사는 사람!!
-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2) 아모스 선지자는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2 절)

▪ 2 절 =>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은가?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은가?’

①. ‘갈레’는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도시로(창 10:10),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 세’ (B.C.744-722)가 점령하여 앗수르로 합병시킴!

②. ‘큰 하맛’은 시리아의 수도로 매우 번영한 도시였지만, B.C.720 년경 앗수르의 ‘사르곤 2 세’(B.C.722-705)에 의해 멸망됨!

③. ‘가드’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 대 성읍 중 하나로 다윗 왕 때는 블레셋의 수도였으나, 역시 시리아의 ‘하사엘’(B.C. 841-798)에 의해 정복됨!

- 결국 3 곳 모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니 다 멸망 당하고 말았다는 것!
- 곧 아무리 ‘시온’과 ‘사마리아’가 안전한 요새요, 부강하다 하더라도, 위의 나라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신차리는 지도자들이 되라는 것!!

3)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회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 쾌락과 사치에만 빠져 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6 절)

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 (3 절)

- 곧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다 생각하며 포악한 짓만 자유롭게 행함!

②. 영적 나태함에 빠져 온갖 사치와 향락만 추구하며 세상 기쁨에 취해있다고 지적! (4-6 절 A)

- ex: 상아 침대, 어린 양/송아지를 즐겨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심,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름…,

③.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6 절 B => ‘…,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 참고로 우리 역사만 돌아보아도 한 나라가 쇠퇴하고 망하기 전에는 늘 지도자들과 지배층들의 안일함과 교만함, 쾌락과 사치 추구의 모습들이 가득했음!
- 우리의 가정과 교회, 국가가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고자 힘쓰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높고 귀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고자 힘쓰자!

2.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파멸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7-11 절)

1) 아모스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7 절)

- 곧 지도자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야고보 =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약 3:1)

2)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가 _____ 두고’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넘기시겠다고 맹세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8 절)

-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심판이 멀리 있다 혹은 시온은 안전하다 여기던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란 사실을 재확인 시켜 준 것!!
-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함!!
 - 특히 여기서 ‘야곱의 영광’의 원어적 의미는 ‘야곱의 자랑거리’라는 뜻!
 -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며 자랑하던 사람들!!
 -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보다는 오히려 우상숭배를 행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세상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자랑거리를 싫어하신다고 선언하신 것!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되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예를 들어 큰 교회당, 큰 사역과 헌신, 가정/직장/사업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

3)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로 내리실 심판의 모습과 결과는 어떠한가요? (8-11 절)

- ①. 원수들의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도 모두 죽게 될 것!
 - 9 절: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 ②.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것!
 - 특별히 10 절을 주목!
 -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 우선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서 장래를 치르고, 또 집에 남은 사람이 ‘없다’는 말에서 9 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예상하게 됨!
 - 또한 10 절에서 한가지 눈 여겨 볼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시체를 화장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친척이 와서 시체를 불태운다는 것은 결국 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것이라고도 해석!!.
 -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
 - 곧 심판 전에는 저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들을 드렸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

- ③.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갈라지고 부서지게 될 것!
- 곧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3.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만 보이는 지도자들을 책망 (12-14 절)

1) 아모스 선지자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바위 위를 달리는 말과 소로 비유하였습니다. (12-13 절)

- ①. 우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발 갈겠느냐?' 질문!
- 말들은 바위 위를 달리지 못하고, 소는 바위를 갈지 못하는데도,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허무한 짓만 하고 있다는 것!
- ②. 그럼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저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무한 짓들은 무엇인가?
 - a. 정의와 공의의 열매들을 쓴 썩과 쓸개로 만들어 버림!
-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소로 바위를 가는 것 짓과 같음!
 - b. 허무한 것, 곧 헛된 것을 기뻐함!
-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세상 사치와 쾌락을 추고하며 게으름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
 - c. 자신들의 힘으로 오늘의 부와 영광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함!
- 시편 127 편 1 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치실 것이며, 이스라엘 전역이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4 절)

- 14 절에 소개된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이고, '아라바 시내'는 남쪽 국경지역!
- 곧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
-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나라는 분명 앗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
- 물론 앗수르와 바벨론은 두 나라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으켜 사용하신 한 나라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앗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흡수되었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나라에 의해 멸망 당한 것이 됨!
-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나눔